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 오늘의 전례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한 10,1-10 참조)

주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들려주듯,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무더기로 부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영혼이 이 목소리를 듣게 되면 창조주의 음성인 줄을 알아듣습니다. 성사와 전례를 통해,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형제들과 이웃과 일상의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헛된 욕심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목자

바티칸 박물관 (작자 미상, 2세기경)

제1독서 사도 2,14-36-41

제2독서 1베드 2,20-25

복 음 요한 10,1-10

입 당 송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화 답 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이성호 (세례자요한) 신부 | 교구 성소담당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 놓는다

세월호의 침몰에서 구조된 이들 중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증언하였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먼저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뒤로하다 세상을 떠난 선생님, 승무원 그리고 친구에 관하여 그들이 증언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찡하게 하고, 내 것을 먼저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제일 위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우리 죄의 용서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우리의 이런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당신의 착한 목자이며,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 10,11 참조) 예전에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불리던 오늘 부활 제4주일의 복음은 우리가 이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는 착한 목자에 관한 복음을 듣는 오늘을 ‘성소(聖召) 주일’로 정하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제, 수도 성소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지원하는 이들의 성소동기가 다양하지만 그 중의 다수는 ‘착한 목자를 닮은 사제의 삶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려는 이들 가운데 열에 다섯은 아프리카 톤즈에서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사제로서의 삶을 불태운 고(故) 이태석 신부님이나 본당에서 만난 착한 목자를 닮은 신부님에게서 받은 감동이 자신의 성소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그저 할 일만 하고 사는 사제,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제가 아니라 참으로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착한 목자를 닮은 사제가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신학교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구대교구는 5월 11일을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4년 성소 주일 담화(요약)

성소, 진리의 증언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고 청하여라.”

(마태 9,35-3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수확할 것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한 결실을 맺도록 일하였습니까?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많은 수확에 놀라고, 언제나 우리를 앞서시는 그분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찬미 드립니다. 이 일에는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또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은 노예가 되는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계약에 따라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강한 유대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루는 유일무이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느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맺은 것입니다.

모든 성소는 가는 길은 서로 다를지라도 자신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혼인 생활을 하든, 봉헌 생활을 하든, 사제 생활을 하든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의 씨앗에 담긴 은총의 힘을 얻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흠숭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1베드 3,15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열정과 숨씨를 다하여 당

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성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잘 가꾸어진 밭에서 무르익어가는 열매입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믿는 이들의 좋은 땅에서 형제애를 경험하는 가운데 싹을 틔웁니다. 부르심 받은 이들의 참다운 기쁨은 주님께서 성실한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곧 주님의 제자이며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큰 이상, 큰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고귀한 이상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와 성경, 성찬례, 교회 안에서 거행하고 실천하는 성사들을 통하여, 또 형제애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긴밀한 일치를 이룰수록, 자비와 진리,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과 협력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은총에 맞게 수확할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으로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어린 교황 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드립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절망은 없다!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주교대리

유명한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란이 “만약 겨울이 ‘내 가슴 속에는 봄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겨울의 말을 믿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파스카의 신비, 즉 부활의 신비를 잘 묵상할 수 있는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겨울이라는 길목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봄에 다다를 수 없다는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 말은 겨울 없이 봄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무지 봄이 올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봄이 온다.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 오고, 잎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돋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름다운 꽃까지 핀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온 봄을 보면서 ‘차가운 겨울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기적과 같은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 부활시기를 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부활의 신비를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의 신비를 살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의 신비를 살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이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고 그중에서도 가장 두렵고 심각한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나 불안하게 살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파스카의 신비, 부활의 신비 속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 이 신비는 구원의 원리이며 우리 삶의 원리이며 행복의 원리이다. 이 신비는 죽음과 부활의 신비

이다. 이 신비는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다. 이 신비를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고통 속에 기쁨이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통 없이는 기쁨도 없다는 말이다. 또한 부활의 신비, 파스카의 신비는 절망 속에 기쁨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 말은 어둠을 거치지 않으면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말했다. “밤의 길목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라는 길목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고통이라는 길목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이 바닥에 닿지 않고서는 다시 튀어 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절망이라는 바닥에 닿지 않으면 희망이라는 공은 절대로 다시 튀어 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의 끔찍한 참상을 보았다. 하필이면 부활대축일에 그런 절망적인 일을 보아야 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 속에서 알렐루야를 노래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부활의 기쁨과는 반대되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 일어났다. 가장 염려스러운 일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절망이라는 좌절에서 일어설지 못할 것 같은 염려이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유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이 부활의 신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비는 희망과 빛의 신비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신비, 파스카의 신비는 말한다.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부활의 신비, 파스카의 신비는 말한다. “절망은 없다!!!”

생지옥에 피어난 꽃 한 송이

방사선학자이자 의사였던 나가이 타카시(永井隆, 1908~1951) 박사는 군의관으로 만주에서 근무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관동군의 만행을 직접 목격한 후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성가정을 이룬 타카시 박사의 작은 행복은 1945년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터에서 사랑하는 부인의 불타버린 뼈와 녹아내린 목주를 발견한 타카시 박사는 오열했습니다. 스스로도 피폭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하느님을 원망할 법도 했지만, 타카시 박사는 남은 삶을 복음과 평화를 위해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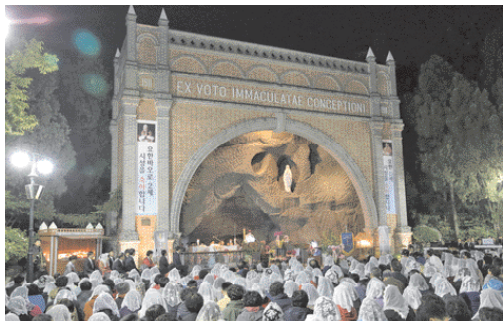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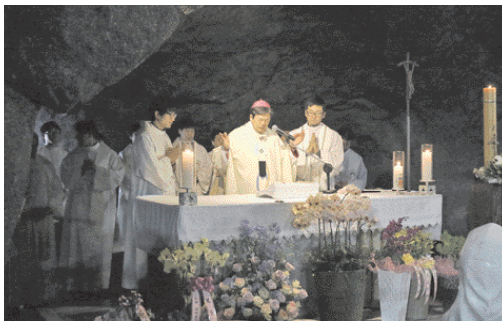


‘여기당’이라 이름붙인 작은 움막에서 1951년 선종하기까지 짧은 여생 동안 지은 『목주알』, 『나가사키의 종』 등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죽어가는 몸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박사의 삶은 교우들 뿐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의 존경을 받아 ‘우라카미의 성자’라 불렸습니다. ‘여기당(如己堂)’이라는 이름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如己愛人)”하신 예수님의 계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칼로**

금주의 성인

5월 11일	성 간굴포(순교자, 부르고뉴, 760년), 성 마메르토(주교, 비엔, 475년경) 성 마올로(수도원장, 클뤼니, 994년), 성 프란치스코(신부, 나폴리, 1642~1716년) 성녀 프린치피아(동정녀, 로마, 420년)
5월 12일	성 네레오(군인, 순교자), 성녀 릭트루다(과부, 수녀원장, 마르시엔, 612~688년) 성 모도알도(주교, 트리어, 640년경), 성 판크라시오(소년, 순교자, 로마, 304년) 성 아킬레오(군인, 순교자), 성 에피파니오(주교, 살라미스, 310~402년)
5월 13일	성녀 글리체리아(동정순교자, 트라야노폴리스, 177년경), 성녀 메네웨나(수녀원장, 람지, 970년) 성 세르바시오(주교, 통그레스, 384년), 복녀 올리아나(신비가, 동정녀, 노리치, 1342~1416년경)
5월 14일	성 마티아(사도, 순교자, 1세기경), 성 미카엘 가리코이트(신부, 증거자, 설립자, 1797~1863년경) 성 보니파시오(순교자, 타르수스, 307년경), 성 폰시오(순교자, 시미에, 258년경) 성녀 코로나(순교자, 176년), 성 카르타고(주교, 수도원장, 리즈모어, 637년경)
5월 15일	성녀 디오니시아(순교자, 트로아스, 251년), 성 이시도로(농부, 평신도, 1070~1130년), 성녀 덤프나(동정순교자, 650년경), 성 힐라리오(은수자, 수도원장, 갈레아타, 476~558년)
5월 16일	성 돔놀로(주교, 르망, 581년), 성 브렌다노(수도원장, 설립자, 484~577년경) 성 시몬 스톡(총장, 1165~1265년), 성 요한 네포묵(신부, 순교자, 네포묵, 1340~1393년) 성 우발도(주교, 구비오, 1160년), 성 호노라토(주교, 아미앵, 600년경)
5월 17일	성녀 바실라(순교자, 알렉산드리아), 성 실라오(주교, 루카, 1100년) 성 파스칼 바일론(수사, 증거자, 1540~1592년)

■ 성 요한 23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성감사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5일(월) 오후 8시 성모당에서 성 요한 23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성감사미사를 봉헌하셨다. 성 요한 23세께서는 1962년 대구대목구를 대교구로 승격시키셨으며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30년 전인 1984년 5월 5일 성모당을 찾아 기도하신 바 있다.

사진 및 기사 제공: 월간(빛)

■ 2014년 보좌 신부 전례 연수



교구 청소년국(담당: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에서 주최하는 2014년 보좌 신부 전례 연수가 5월 1일(목)부터 2일(금)까지 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교구 사제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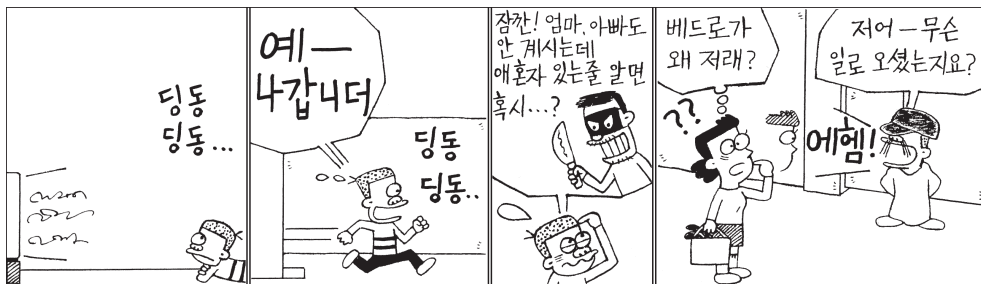
성 유스티노 신학교 사료(史料)를 수집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말 남산동 캠퍼스 내 '성 유스티노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여 모든 순례객들에게 볼거리와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신학교와 관련된 역사자료(사진, 기록물 등 모든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대구가톨릭대학교 남산동 캠퍼스(대신학원) 053)660-5110~5112

낮선 사람은 조심!!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2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5월 12일(월) 19:30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2일(월) 11:00 월성성당	교구청 꾸르실료 교육관 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12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15일(목)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12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5월 17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5월 17일(토) 11:00 성모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2일(월) 11:30 범어성당	평화미사	5월 17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성소 | 피정

예수회 학생 성소자 모임(이니고 모임)

건강한 인성과 신앙을 바탕으로 성소의 씨앗을 성장시키도록 동반합니다
일시: 5.25(일) 14:00~18:00
대상: 중2~대학 2학년 남학생
문의: (010)9981-1208 / (010)6483-4008

군중후원회 일일 피정

일시: 5.12(월) 10:00~17:00
장소: 교구청 다동 강당 / 주제: 말씀
강사: 박성태(요한) 2대리구 주교대리신부
문의: 사무실, 256-0815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5.20(화)~21(수), 매일 셋째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교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내적여정 에너지그림 피정

기간: 5.23(금)~25(일)
장소: 경남 고성 수도원
주최: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수도회

문의: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교육 | 모집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물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차정숙레지나, (010)9510-6962

2014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5.5(월)~16(금)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문의: 850-3505

명사특강: 성령쇄신봉사회 안득수 박사

일시: 5.14(수) 14:00~15:30
장소: 바오로딸사원(시내 공평동)
주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용: 성령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
신청: (010)2658-5185, 회비 없음

남양성모성지 성모의 밤

일시: 5.17(토) 15:30 오프닝 공연 /

17:00 합창단 공연 / 19:30 성모의 밤
문의: 남양성모성지, (031)356-5880

제3회 국악성가 캠프

기간: 7.11(금)~13(일)
장소: 의정부 한마음수련원
참가비: 18만 원(교재, 숙식 포함)
문의: (070)8875-8827

제44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설명회

일시: 5.17(토) 14:00~15:00, 남산성당
대상: 초·중·고·대학생·일반
주관: 마 신부님(아일랜드 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가곡교실, 발성마스트클래스,
키보드 반주법, 수지침, 심리상담
문의: (070)4266-0047

이스라엘, 이태리 성지순례

기간: 9.18(목)~10.2(목)
주관: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http://www.terrasanta.kr>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웨딩사랑
www.weddingsarang.co.kr
대구 최대규모 365일 웨딩박람회
예약장, 웨딩드레스, 허니문 무료상당
웨딩준비 전문, 웨딩컨설팅 전문기업
최창열 053)425-8216
바실리오 010-9687-0500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서울 사무실 흥대 앞
이원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이 원 의 료 기
협업계·협당계·협체어·산소치료기
뜸·부항기·주열기·찜질기
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안마기
실버카·보호대·글루코사민·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윤영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용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구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통전화 080-053-1000
아득수(아네스) 010-5048-7739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

일시: 5.11(일) 19:30, 성모당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순교자 124위 관련 순례지 전대사 선포 미사

일시: 5.17(토) 19:30, 복자성당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행사 | 모임

5월 가나강좌

일시: 5.18(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만촌성당 희망나눔 바자회

일시: 5.17(토) 12:00~22:00
5.18(일) 10:00~22:00
장소: 만촌성당, 754-2288
주제: 새로운 본당 30년을 위한
희망나눔 바자회

2014 대구성령대회

일시: 5.24(토) 10: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강사: 한연흠(다니엘) 신부
(전. 수원교구 성령봉사회 담당)

교육 | 모집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특강

일시: 5.24(토) 10:00~12: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 5천 원
주제: 성모마리아 공경신심과 대구의 여인들
강사: 김정숙(테레사)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2014 상반기 정의평화위원회 수요일레특강

일시: 5.14(수) 19:00, 1대리구청 강당
주제: 환경과 생명(홍-생명과 농업)
강사: 우희중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문의: (010)5923-3163

대구가톨릭 남성합창단 신단원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매주 토 19:00
장소: 가톨릭문화관 5층
자격: 음악을 사랑하는 가톨릭신자
참고: 성악전공 관계없음(오디션필수)
문의: 송재용, (010)3352-8748

중국어(中國語) 성경, 성가교육 및 회원모집

중국어 성경: 매주(토) 16:20

중국어 성가: 월례회미사 30분 전
대상: 중국어 초급정도의 모든신자
문의: 한중(韓中)천주교 친선협회
계산문화관 (010)2662-1560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 연수

기간: 7.19(토)~8.16(토)
대상: 초4~고3(50명 / 선착순 모집)
문의: 656-6655 (ARS 4)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 중
문의: 593-1273

채용 | 안내

월명성모의집 직원 채용

김천 월명성모의집요양원 증축으로
인한 직원을 모집합니다.(기숙사 가능)
분야: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문의: (054)435-8122 / (010)9141-6219
<http://www.wms.or.kr>

보건복지부 지정 『가톨릭 류마티스·관절센터』 외래 진료 시작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가톨릭 류마티스·관절센터』가
5.19(월)부터 3개 진료과(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한층 더 새로워진 진료를 시작합니다.

대구평화방송 특집 프로그램 안내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한 대구대교구 원로신부님들의 삶을 들어보는
『임파라 사랑파라』를 방송합니다. (협찬: 가톨릭경제인회)
방송시간: 매주 토요일 11:05 ~ 12:00

5월 10일(토) 이종홍(그리산도) 몬시뇰	5월 17일(토) 이종홍(그리산도) 몬시뇰
5월 24일(토) 최봉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5월 31일(토) 최봉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큰 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이전 확장**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당),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053)651-2233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목) 14시~
개교100주년
기념미사 &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100주년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이시우 신경
<http://최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안마의자 렌탈, 특가판매
안마의자, 승마운동기
로하스테크안마의자대구점
오 해 수(미카엘)
010-8958-9351 / 354-9020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가구백화점 1층
(무료체험실운영)

행복한 재활·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식 운영,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파나)
이 범 수(대건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목조 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